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9호 【루계 제24357호】 주체102(2013)년 11월 5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대표단 단장인 씨다르또 다누쑤브로또의장이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김정일대원수님회고위원회

베닌에서 결성

김정일대원수님회고 베닌사회주의당위원회 결성식이 10월 22일 꼬또누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베닌사회주의당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결성식에서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예지, 특출한 령도력, 강철의 의지에 의하여 사회주의조선은 세계만방에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세계자주화위업과 사회주의운동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가, 서기장으로 부위원장 아그바혼죠 쥬스땡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장군회고 베닌전국위원회 결성식이 10월 23일 꼬또누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베닌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단체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쑤 꼬호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의 사상리론들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있다. 그이의 로작들은 혁명과 건설의 총서, 대백과전서이다.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김정일장군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베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인 꼬또누기자대학 학장 빠스깔 준체메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것은 김정일령도자의 구상이고 념원이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위업은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헤쑤 꼬호비가, 서기장으로 빠스깔 준체메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중국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월 31일과 11월 1일 중국의 출판보도물들이 보도하였다.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답게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서 근위부대, 영웅부대의 전투적기백과 결사관철의 정신을 남김없이 과시한 군인건설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군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애국적헌신성과 고귀한 노력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앞으로도 당이 맡겨준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전구마다에서 선도자적역할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신문 《챠이나 데일리》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화력타격훈련을 보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감시소에서 훈련진행계획과 타격부대들의 배치상태에 대하여 청취하시고 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장병들의 훈련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중대에 돌아가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다진 맹세대로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중대를 무적필승의 전투대오,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만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인민망, 보도망,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우와 같은 소식들을 전하였다.

홍콩 《대공보》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6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로씨야 유쥬노—싸할린스크시 꼴로리뜨출판사에서 10월 3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절에 즈음하여 당보 《로동신문》, 군보 《조선인민군》에 주신 담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10월 4일 벌가리아 자라바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10월 9일 리비아 아말 아와일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든 부문에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올해를 떳떳이 총화할수 있게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과제를 매일 어김없이 집행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10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0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드높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할 열의안고 일터마다에서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식료일용공업성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에서 10월 공업총생산액계획을 110%로 넘쳐 수행하였다.

성일군들이 계획수행을 위한 경제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고 아래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는 사업을 잘하였다.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양곡산공장, 선흥식료공장, 대동강식료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의 로동계급은 식료품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불타는 일념을 안고 설비마다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였다.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양곡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은정속에 꾸려진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이 은을 내도록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사탕, 과자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다.

선흥식료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질좋은 식료품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녀성들속에서 인기를 끄는 여러가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맡겨진 10월 화장품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평양수지연필공장, 신의주법랑철기공장, 강계연필공장, 전천성냥공장에서도 계획수행기간 설비가동률을 높이면서 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였다.

림업부문에서

림업부문에서 혁신의 소식이 전해졌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안남도림업관리국과 강원도림업관리국, 평안북도림업관리국들에서 10월 통나무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평안남도림업관리국 덕천갱목생산사업소의 로동계급은 림지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집단적혁신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지난달 통나무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동발과 통나무를 생산보장할 일념안고 떨쳐나선 북창, 신양, 덕련, 대흥갱목생산사업소들의 로동계급도 설비관리, 운재길관리를 잘하여 맡겨진 10월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였다.

강원도림업관리국 천내갱목생산사업소의 로동계급은 채벌조건에 맞게 소발구를 리용한 나무나르기와 대용연료에 의한 통나무운반에 큰 힘을 넣어 많은 동발나무를 생산하였다.

안변림산사업소, 판교림산사업소들에서도 각종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수송전투를 벌려 맡겨진 통나무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평안북도림업관리국의 통나무생산사들도 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벽동림산사업소의 로동계급은 겨울철생산준비를 착실히 내밀면서 앞선 나무베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종전보다 설비가동률을 훨씬 높여 통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태천림산사업소의 통나무생산자들도 조건보장이 어려운 속에서 자체로 부족되는 자재, 부속품들을 마련하면서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운산, 구장산림개조사업소들과 동창, 수풍, 천마림산사업소들에서도 많은 동발나무를 생산하여 석탄전선에 보내주었다.

채취기계공업지도국에서

채취기계공업지도국에서 10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지도국의 일군들은 석탄, 금속공업부문에 필요한 설비들을 원만히 생산하여 보내주는데 모를 박고 경제작전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이 아래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원단위소비기준을 극력 낮추며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도록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중요대상설비생산을 맡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집단적혁신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졌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김철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대상설비생산이 립체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로력조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고 공정간 련계가 잘 맞물리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권양기직장, 채탄기직장, 주강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깐지게 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과 새 기술혁신안들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면서 생산을 일정계획대로 내밀었다.

안주뽐프공장에서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뽐프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원료, 자재보장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사회주의증산경쟁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질좋은 뽐프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계획수행기간 룡암포기계공장에서도 많은 일을 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부족되는 자재는 자체로 마련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미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회령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한 지도국아래 다른 공장들의 로동계급도 총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생산을 힘있게 다그쳤다.

잠업비단지도국에서

잠업비단지도국에서 10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각지 공장로동계급의 앙양된 열의와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지도국적인 공업총생산액계획과 비단실, 비로도, 담요 등 중요지표별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계급이 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렸다. 일터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는 속에 지난달에도 비단실과 솜생산에서 높은 실적이 기록되였다.

함흥제사공장, 성천제사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들의 만가동보장에 첫째가는 힘을 넣으면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활발히 벌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강서제사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행생산을 중단없이 내밀면서도 조사기를 비롯한 종전의 생산설비들을 현대적인것으로 전부 교체하고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지도국아래 각지 견직공장들에서도 타번졌다.

박천견직공장에서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질좋은 담요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특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련관단위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비로도생산을 질량적으로 늘이기 위한데 력량을 집중하여 10월 비로도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혁신을 창조하였다.

녕변견직공장의 로동계급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밤낮이 따로 없는 증산돌격전을 벌려 다색단, 데트론모시천 등 맡겨진 지표별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덕천견직공장, 금야견직공장에서는 교대간 련계를 짜고들고 공정간 맞물림을 잘하여 10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으며 안주견직공장에서도 지표별계획수행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전자기구관리국에서

전자공업성 전자기구관리국에서 10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관리국당조직의 지도밑에 국의 일군들이 아래공장들에 대한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적극 따라세우고 단위들사이 협동품맞물림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였다.

대동강텔레비죤수상기공장의 로동계급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안고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공장의 일군들은 새 기술도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내밀면서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이며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각종 전자제품생산을 늘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하여 텔레비죤수상기, 고성기를 비롯한 지표별생산에서 자랑찬 혁신을 창조하였다.

전자기술제품연구소, 룡강전자기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가치있는 창의고안들과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

신의주전자기구공장에서는 원단위소비기준을 극력 낮추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일터마다에서 증산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수자식전압주파수계, 오존소독기를 비롯한 각종 전자기구생산을 늘이였다.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천적성과로 꽃피워갈 일념안고 떨쳐나선 애국자석공장의 로동계급도 세포등판건설전투장에 보내줄 풍력발전기를 더 질좋게,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투쟁을 벌리였다.

희천영예군인전자기구공장, 사리원전자기구공장, 단천영예군인반도체공장을 비롯한 관리국아래 다른 공장들의 로동계급도 전투장마다에서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은률광산에서

은률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불리한 생산조건을 과감히 뚫고 10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이 과정에 많은 량의 철광석이 생산되여 주체철생산으로 세차게 끓어번지는 철의 기지들에 보내여졌다.

계획수행기간 광산의 당, 행정일군들은 현존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면서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특히 광산당조직에서는 호소성이 강한 직관선전과 경제선동을 참신하게 벌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 관철에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청년광구의 광부들은 박토처리와 운반, 배수계통에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확보한데 기초하여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었다. 그들은 불리한 조건으로 부득불 심부막장을 차지하지 못할 때에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새로운 곳에 채광장들을 마련하여 더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였다.

증산광구의 광부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려 매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들은 교대를 끝내고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 수행하였다.

보장단위의 로동계급은 수시로 제기되는 부속품가공과 채굴설비들에 대한 수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광부들과 한전호에서 철광석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낟알털기를 끝낸 단위들이 늘어난다

각지 농촌들에서

뜻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각지 농촌들에서 낟알털기를 앞당겨 끝낸 단위들이 늘어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0월까지 사리원시 미곡, 태천군 은흥, 재령군 삼지강,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과 각지 농촌들의 수천개 작업반들에서 낟알털기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입니다.》

농업성에서는 가을철기상조건으로 벼여물기가 빨리 진행된데 맞게 가을걷이와 벼단실어들이기, 낟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낼 목표를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평양시 주변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중소농기구준비와 탈곡기수리를 질적으로 끝내고 가을걷이와 벼단실어들이기를 앞세움으로써 낟알털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시주변의 농장들에서는 일정계획을 바로세우고 력량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강냉이, 논벼의 낟알털기를 말끔히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강원도에서 570여개의 작업반들이 낟알털기를 결속하였다.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로력과 기계수단을 총집중하여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낟알털기를 끝내였다.

황해남도의 일군들이 봄내, 여름내 애써 지어놓은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투쟁에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도에서는 시, 군, 농장일군들이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전투분위기를 세우게 하는것과 함께 낟알털기조직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였다. 특히 재령군 삼지강, 북지, 안악군 오국, 룡산, 신천군 새길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도안의 1000여개 작업반들에서 낟알털기를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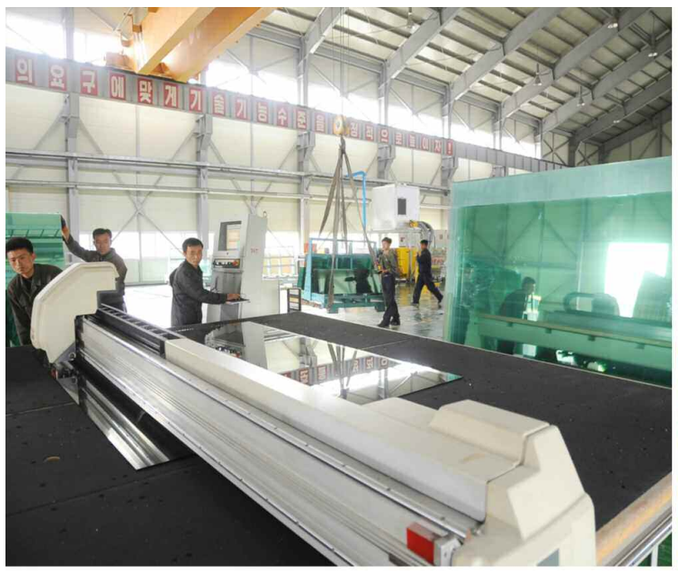
황해북도에서도 낟알털기가 마지막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전국의 본보기농장인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벼베기와 낟알털기를 다같이 내밀어 한달 남짓한 기간에 말끔히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들의 뒤를 따라 승호, 상원, 토산군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650여개 작업반들에서 낟알털기를 지난해보다 한달이상 앞당기는 자랑을 떨치였다.

함경남도에서도 일정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도에서는 1400여대의 이동식탈곡기들을 현장에 전개해놓고 곡식을 가을하는족족 털어내게 하였다. 결과 수백개의 작업반들에서 낟알털기를 끝냄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실적을 4배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남도, 남포시를 비롯한 다른 도들에서도 낟알털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올리고있다.

농사를 결속한 농장들에서 기쁨속에 결산분배모임을 진행하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판유리생산을 다그친다.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우리 장군님의 고결한 애국헌신의 세계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드높이 뜻깊은 이해의 하루하루를 투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우리모두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글발이 빛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넋이고 숨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

위대한 애국헌신으로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추억과 함께 향도의 우리 당을 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길에서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 총진군의 전략적목표들이 자자구구마다에 얼마나 세차게 맥박치는가.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애국의 호소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새기고 날에날마다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가며 천만군민은 확신하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열풍과 더불어 이룩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의 날에 터져오를 장쾌한 축포성을, 선군승리의 우렁찬 환호성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일고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높이 솟아오르게 될것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

이 세상 가장 열렬한 애국의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의 고결한 한생이 이 성스러운 글발속에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가렬한 전화의 포화속에서 애어린 두 그루의 잣나무에 승리할 조국의 앞날을 담으시였고 전쟁을 이겨낸 애솔포기를 손수 가꾸시면서 강성번영할 이 땅의 래일을 락관하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사회주의터전에 손수 묻으신 애국의 씨앗들이 지금은 조국을 받드는 거목으로 자라 무성한 아지를 활짝 펼치였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혁명활동의 첫 자욱을 새기시며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피력하신 이 숭고한 애국의 리념은 그대로 그이께서 한평생 안고 사신 고결한 리상이고 꿈이였으며 철석의 맹세였다.

그 위대한 리념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는 선반도 돌리시고 어깨가 부어오르도록 목도도 메시면서 애국의 성스러운 땀을 바쳐 조국을 빛내여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조국은 뗄래야 뗄수 없는 혈연의 관계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제일강산》에서 자신과 조국을 하나로 결합시키시고 조선아, 조선아 너는 나의것 나는 너의것이라고 그토록 격조높이 노래하신것이였다.

언제나 사랑하는 내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타는 애국의 참뜻을 우리는 그이의 기록한 혁명생애에서 더욱 깊이 절감하였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노래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 노래가사에 《푸르른 하늘엔 해빛넘치고 기름진 이 땅엔 사랑넘치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내 조국이 우리 인민의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라는것을 형상적으로 표현한것이라고, 나는 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김일성민족이 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푸른 하늘과 바다, 기름진 이 땅을 끝까지 지키고 락원으로 가꾸어갈것이라고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이런 애국의지를 지니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만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대대손손 누려갈 우리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물겹게 안겨온다.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는 두고온 조국과 인민들에 대한 형언할수 없는 그리움에 젖어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감회깊이 불러보군 하시였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나무가 얼마 없는 산들을 보시면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조국의 산천을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훌륭히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부대주변의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꾼것을 보시면 더없이 기뻐하시며 애국자부대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였고 살구나무나 감나무들이 우거진 마을과 중대병영을 보시면 환하게 웃으시며 살구나무동네, 감나무중대라고 민족의 향취를 담아 정답게 불러주군 하시였다.

참된 애국자만이 위대한 강국을 구상하고 건설할수 있다.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무수히 헤쳐넘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장정과 더불어 지난날 야장간의 풀무질소리 울리던 이 땅을 박차고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솟구쳐오르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락원과 함흥, 남흥과 성강, 미곡과 원흥 등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기적적인 사변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이께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는 곳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기적의 나라로 위용떨치였다.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는 길에서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또 얼마나 위대한것인가.

우리 장군님께서 사나운 눈보라와 삼복의 무더위속을 헤치시며 병사들을 찾아 넘고 오르신 철령과 오성산, 사나운 파도를 헤치며 찾으신 초도를 비롯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은 선군장정의 길에 바치신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증견자들이다.

세상에는 애국자도 많고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가도 많지만 우리 장군님과 같이 그렇듯 뜨겁고 무한대한 애국애민의 헌신으로 한생을 빛내이신 위인은 없었다. 정녕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걸출한 령도자, 비범한 정치가, 위대한 혁명가이시기 전에 절세의 애국자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리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을 위한 력사의 분수령에서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에 힘있는 사람은 힘을,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자는 력사적인 개선연설로 애국의 불길을 일으켜 새 조국건설의 앞길을 열어나가신것처럼 그리고 어버이장군님께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가자는 친필서한으로 애국의 불길을 일으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길을 열어나가신것처럼 김정일애국주의를 불씨로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조국을 위하여 한생을 초불처럼 태우신 어버이장군님의 애국주의로 대중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칠 때 우리에게는 겁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이 땅의 돌 하나, 풀 한포기도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온넋과 육신을 깡그리 바침으로써 우리 조국을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빛내이자! 이것이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혁명일화

바다밑에서의 축구경기

바다밑에서 축구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의문부터 앞세울것이다.

바다밑에서 축구를 하다니?!

세상을 놀래우는 이 꿈같은 사실이 수십년전 서해갑문건설장에서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새로운 앙양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4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해갑문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오래도록 가물막이공사장이며 기본언제건설장, 멀리 대형부재장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으로부터 공사진행정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였다.

중요공사대상별력량배치정형과 앞으로 진행할 기본언제, 가물막이, 무넘이언제, 갑실공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며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갑문건설을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자신의 생각에는 주타격목표가 없는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영문을 몰라하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갑문건설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기본언제공사를 얼마나 했다는 보고만 올라오기때문에 한번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와보니 생각했던 그대로라고 하시며 갑문건설에서 기본이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깨우쳐주시였다.

가물막이공사를 주타격목표로 설정하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래야 립체전, 전면전을 들이댈데 대한 당의 요구를 더 잘 실현할수 있다. …

그때에야 비로소 일군들은 전투조직과 지휘에서 자기들이 범한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였다.

만약 그대로 나간다면 앞서 끝내야 할 가물막이공사가 다른 공사보다 엄청나게 늦어질것이며 설사 기본언제와 가물막이공사를 동시에 끝낸다 해도 그때부터 가물막이안의 물을 퍼내고 갑실과 무넘이언제공사를 해야 하는것만큼 어차피 갑문공사는 장기전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것이였다.

깊은 자책감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라도 전투조직을 새로 해서 주타격목표에 력량을 집중하라고, 그래서 예정대로 가물막이전투를 끝내고 세상에 없는 축구경기, 바다밑에서의 축구경기를 크게 벌리라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참으로 휘황한 목표였고 따뜻한 고무였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후 일군들은 주타격방향에 력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부대들을 배비변경하였다.

그리하여 기본언제를 쌓고있던 여러 부대들과 강력한 륜전기재들로 장비된 기계화부대들이 가물막이와 갑실, 무넘이언제공사장으로 자리를 옮기였다.

여기저기 속보판들에는 다음과 같은 경기대전날자와 시간까지 나붙었다.

《경기날자 1984년 4월 15일 오전 10시》

가물막이공사를 끝내기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졌다.

이 치렬한 공격전의 나날에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1211고지와 351고지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 불굴의 투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세상사람들이 몇년이 걸려야 한다던 가물막이공사를 불과 두해동안에 끝내고 많은 량의 물을 단숨에 퍼올리였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력사에 없는 희한한 사변들을 련속 펼치시며 끝없는 헌신의 나날들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조직력에 의하여 드디여 서해갑문건설장에 《바다밑축구경기장》이 마련된것이였다.

잊을수 없는 주체73(1984)년 4월 15일 10시!

인민군군인들은 예정대로 《바다밑축구경기장》에서 축구경기를 진행하였다.

세상에 다시 없을 축구경기,

정녕 그것은 조선의 기적이 어떻게 창조될수 있었는가에 대한 긍지높은 대답이였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11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씨다르또 다누쑤브로또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완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나스리 구스따만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단장은 김정은각하께서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고 말하였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박 봉 주 총 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현지료해

【평양 11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내각총리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기업소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일군들이 전력생산에서 기업소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로동계급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이와 함께 련관부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이어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석탄보장과 관련한 일군협의회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제남탄광에서 진행되였다.

협의회에서는 월별, 분기별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전력증산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되였으며 필요한 조직사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총리는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서 협의회를 열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련관단위들에서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박봉주총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현지료해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의 우월성

오늘 우리 당은 전사회적으로 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창조와 비약으로 들끓는 오늘의 시대에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실력가들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열심히 배워야 한다.

온 나라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김일성주의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62(1973)년 11월 5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적인 학습방법들을 적극 구현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인 학습방법들은 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그 생활력이 확증된 훌륭한 학습방법입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이며 생명선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 혁명을 하려는 열정도 학습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학습으로 시작되고 학습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것이 혁명가의 참된 삶이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에서도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우월한 학습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학습내용이 훌륭하고 배우려는 열정이 아무리 높아도 방법론이 바로서지 않으면 응당한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끊임없이 비약하는 오늘의 시대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학습방법을 확립하는 문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이며 위력한 학습방법이다. 조선혁명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학습과 전투, 학습과 생산, 학습과 휴식을 결합하여 늘 꾸준히 학습하며 아는 사람은 가르쳐주고 모르는 사람은 배우며 누구나 다 학습하는 방법이라는데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제1차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의 훌륭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불꽃으로 하여 전당에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확립하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주체사상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없애고 학습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산지식을 체득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학습방법이다.

혁명가들이 학습하는 목적은 혁명실천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자는데 있다. 통제에 못이겨 눈가림식으로 하는 학습이나 겉치레식학습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 학습에서 형식주의는 금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되여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한 문답식학습방법의 우월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면서 학습에서 형식주의, 교조주의의 낡은 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당사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학습을 혁명가의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고 꾸준히 학습하였으며 학습의 실효성을 최대로 높이게 하는데서 귀중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혁명적인 학습열의를 지니고 가장 실속있는 문답식학습방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혁명의 원리와 전략전술, 군사전법을 체득하고 일제와의 가렬한 전투들에서 위훈을 떨치였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우리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검증되였다. 언제 어디서나 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해온 항일혁명선렬들의 학습방법은 오늘도 귀중한 경험으로 되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이다.

모든것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며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기적을 창조해나가는것이 오늘의 약동하는 기상이다. 이 위대한 시대에 지식의 빈곤자, 실력이 없는 건달군은 있을 자리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학습에서 형식주의, 교조주의를 없애고 항일의 나날에 창조된 문답식학습방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학습방법들을 오늘의 현실에 철저히 구현해나갈때 우리 혁명대오는 더욱 정예화될것이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학습을 전투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학습방법이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귀중한것이 시간이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을 아끼며 조건과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정열적으로 학습하는것은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구애되지 않고 학습을 완전히 생활화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전투적인 학습방법을 따라배워 모든 당조직들이 구체적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하루에도 몇차례씩 전투를 하고 강행군을 하면서도 학습을 중단한적이 없었다.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도 책을 보고 혁명의 강령들을 가사화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기동성있게 전투적으로 학습한 정열가들이 바로 항일유격대원들이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지난 기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사상사업부문에서 적극 활용되여왔다. 개별학습과 집체학습, 강의와 토론, 정기학습과 집중학습이 구체적실정에 맞게 유기적으로 배합되고 방송과 직관선전물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들이 적극 활용되였으며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나 항일유격대원들이 마당거우밀영과 백석탄밀영에서 보여준 전투적인 학습열의가 그대로 차넘쳤다. 지난 기간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이다.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학습을 현실과 결부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위력한 학습방법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은 무의미하다. 지식을 위한 학습은 지식 그자체로만 남아있을뿐아니라 실천에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다. 매 순간순간이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하고 책상머리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속에서 배우는것이라야 혁명과 건설에 실지 이바지하는 학습으로 될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군정학습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과 론쟁을 심화시키고 하나를 배워도 군중공작과 원쑤격멸을 위한 산지식으로 체득함으로써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당이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학습을 강하게 내미는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단순히 그 어떤 지식을 주기 위한 행정적조치가 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현시대는 정보산업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정보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류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는 오늘날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지난날의 낡은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서는 거창한 시대적흐름에 절대로 따라설수 없다.

우리 당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모든 분야에서 21세기를 대표하고 세계를 압도해나가는 기적을 창조해나갈데 대한 최첨단돌파사상을 제시하였다. 당의 의도대로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나가자면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알아야 하며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해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심화시켜 사상관점도 투쟁기풍도 일본새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때 어디서나 시대를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이 창조되고 우리 조국은 더욱 부강해질것이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가 펼쳐진 오늘의 장엄한 시대는 당과 조국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쟁쟁한 실력가, 유능한 혁명인재들을 요구하고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혁명적인 학습방법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학습하고 또 학습할때 그 어디서나 실력전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몰아치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들에서 더 많은 기적과 위훈이 창조될것이다.

김 은 주

위대성교양을 참신하게

피현군 하단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를 실속있게 집행해나가도록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일군들부터가 앞장서고있다. 일군들이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도서들과 당보를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농업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은 한평생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걷고 걸으시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부흥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천출위인이시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은 이곳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최 원 화

《국토관리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김 정 은

도로의 견고성과 문화성보장에서 중시한 문제

순천시 일군들의 사업에서

도로관리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인민에 대한 관점문제라고 할수 있다. 최근 순천시 일군들이 펼친 도로포장작전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로의 문화성과 견고성을 보장하는데서 도로포장을 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앞둔 어느날 시책임일군의 사무실은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국토관리전반사업에서 제기되는 과업중 어떤 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내밀것인가 하는것을 토의하는 협의회에서 론의점은 도로의 기술개건문제에 집중되였다. 도로를 포장하자니 걸리는것이 많았기때문이였다. 이때 시책임일군이 우리에게는 지난해 수십리구간의 도로를 포장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결심을 내놓았다.

《문제는 인민에 대한 관점문제입니다. 우리는 련봉—련포도로포장공사를 하여 륜전기재들의 운행과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더 잘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일군들로 하여금 지난해 룡성—평성—순천—개천도로포장공사가 진행되던 때를 돌이켜보게 하였다. 당시 시앞에는 수십리구간의 도로를 포장해야 할 과업이 나섰다. 일군들은 방대한 일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해내자면 이미 있던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문부문의 한 일군은 의견을 달리하였다.

《도로의 견고성과 문화성을 보장하자면 기초층부터 기술적요구대로 다져야 합니다. …》

그러면서 그는 이미 포장되여있는 콩크리트를 까내야 할것은 까내고 도로의 넓혀야 할 구간은 넓혀야 한다, 또한 수십리 전구간에 혼석을 두툼히 깔고 잘 다져야 한다고 하면서 기초공사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이렇게 되여 수십리구간의 도로포장을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되였다. 현지에 나간 일군들은 도로기초에 쓰이는 혼석은 자갈함유량이 보통 60%여야 하고 나무뿌리와 감탕을 비롯한 오물이 섞이지 말아야 한다, 자갈의 최대직경은 60㎜까지 하며 일정한 크기의 자갈은 5%까지 허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로 가슴을 끓이며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은 기초공사를 잘하는것은 도로의 견고성과 문화성보장을 위한 첫 공정이라고 하면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갔다.

이 사실을 돌이켜본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관점만 바로가지면 얼마든지 련봉—련포도로포장공사를 해낼수 있다고 하면서 단계별목표를 세웠다.

다음날 련봉—련포도로포장공사 제1단계착공을 알리는 륜전기재들의 발동소리가 울리는 속에 6 000여㎥의 혼석과 2 000여t의 세멘트 등을 실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시일군들이 또 한가지 잘한것은 륜전기재들의 운행을 보장하면서 도로기초공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도록 한것이다.

공사가 시작되던 날이였다. 도로에 매일 많은 혼석이 쌓이다보니 륜전기재들의 운행이 중단될수 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다른 도로가 있기때문에 그 도로를 리용하면 될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시인민위원회일군은 그들의 의견을 따를수 없었다. 이 도로는 중량차들을 비롯한 륜전기재들이 많이 오가는 도로이므로 다른 도로를 리용하면 기름이 랑비되는것은 물론 여러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기때문이였다. 이로부터 그는 혼석을 실어들이는족족 펴면 륜전기재들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것은 물론 잘 다져지기때문에 도로포장의 견고성이 보장될것이라고 하였다. 모두가 지지하였다. 그는 즉시 혼석을 실어들이는족족 도로에 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모든 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로동자, 사무원들이 도로기초층의 두께를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할수 있게 실천적모범을 보이도록 하였다.

기초공사에 떨쳐나선 전문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혼석우에 깬돌과 모래를 펴면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갔다.

혼석을 실어들이는족족 도로에 펴면서 기초층을 다지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선 도로기초층다짐에 들던 많은 로력이 절약되여 좋았다. 따라서 도로포장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였다. 또한 도로기초층다짐에 동원되였던 많은 로력으로 연석을 생산할수 있어 더욱 좋았다.

시일군들이 도로포장공사준비에서 중시한 문제의 하나가 있다. 그것은 콩크리트혼합기와 도로포장기재준비, 모래, 자갈, 세멘트실어들이기를 앞세우면서 걸음길에 색보도블로크를 깔기 위한 준비를 따라세운것이다. 이와 함께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은 자기가 사는 고향산천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릴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떨쳐나섰다. 그들은 륜전기재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자면 도로의 견고성과 문화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걸음길에 색보도블로크를 깔기 위한 준비를 다그쳤다.

이렇게 하여 시에서는 수천m의 련봉—련포도로를 견고성과 문화성이 보장되게 포장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마련하였다.

경험은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나갈 때 도로의 견고성과 문화성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창 길

모두가 주인이다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으로 온 나라가 끓고있다.

국토관리사업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국토관리사업을 잘하여 조국산천을 인민의 락원으로 더 잘 꾸리려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의도이고 결심이다.

국토환경보호성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가을철국토관리사업도 시기가 있습니다. 땅이 얼기 전에 끝내야 하는 이 사업은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바로 짧은 기간에 계획된 과제를 남먼저 수행한 자강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모범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지금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신심드높이 떨쳐나선 온 나라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조국강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국토관리의 주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자면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모든 일군들과 인민들이 이 사업에 총동원되여야 합니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전령토를 포괄하는 대단히 폭넓고 거창하며 장기성을 띠는 전망적인 사업이므로 국토관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만으로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된다.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애국자는 자기 고향, 자기 일터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뜨거운 열을 주고 숨결을 부어주는 사람이다.

위대한 장군님처럼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사람이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애국자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자기 향토를 꾸리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관리사업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모두가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애국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산천, 자기 향토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한그루의 나무를 심고 한구간의 도로와 제방을 보수해도 애국으로 높뛰는 심장을 바쳐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하여야 한다.

모두가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가을철국토관리사업에서 애국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해나감으로써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꾸려나가야 한다.

은을 내는 양묘장

은률군산림경영소 청년양묘작업반에서

은률군산림경영소 청년양묘작업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종전보다 나무모를 100여만그루이상 더 생산한다니 소문날만도 하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자면 나무모기르기를 앞세워야 합니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를 받아안은 산림경영소의 지배인 장준철동무는 자기 사업을 놓고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현재 양묘장의 나무모생산능력을 놓고 만족할수 있는가.)

그럴수록 어떻게 하나 양묘장을 더 잘 꾸려 나무모생산을 늘여야겠다는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며칠후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배인은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놀라와하였다. 자체의 힘으로 양묘장의 생산능력을 더 높인다는것이 너무나 아름찼기때문이였다. 그러는 그들을 보며 지배인은 이렇게 호소하였다.

《하루빨리 모든 산을 푸른 숲 우거지게 하려면 힘이 들더라도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해야만 합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떨쳐나섰다. 근 1정보의 야외재배장과 2개의 야외삽목장을 건설하고 무동력회전분무기를 만들어 설치하자니 일감이 너무도 방대하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가 애국의 마음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다싶이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군의 책임일군들도 적극 도와나섰다. 그들은 양묘장의 나무모생산토대를 위한 설비들과 자재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먼길을 오가면서 건설이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었다.

자기 고향산천을 푸른 숲 설레이게 하려는 종업원들의 불같은 열의와 군책임일군들의 사심없는 방조에 의하여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나무모생산토대가 훌륭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보다 1.3배이상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영양단지성형기까지 마련되여 나무모생산을 공업화할수 있게 되였을뿐만아니라 사름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지금 양묘장에는 이깔나무, 수유나무, 수삼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이 꽉 들어차있다.

하기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작업반장은 이렇게 말한다.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위한 생산토대를 마련하는것이 바로 나무모생산을 늘이는 지름길입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원과 유원지들을 본보기가 될수 있게 꾸리고 록지를 더 많이 조성하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심어 수도 평양을 수림화된 도시, 록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6만㎡의 면적에 잔디를 심었다

락랑구역에서

락랑구역에서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6만㎡의 면적에 잔디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이미 있던 잔디를 좋은 품종의 잔디로 바꿀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종자확보와 적지선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질좋은 부식토와 구운흙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특히 륜전기재들의 만가동과 구운흙생산에 필요한 조건보장사업을 앞세웠다.

구역인민위원회일군들이 현장에 내려가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그들은 원림사업소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잔디밭조성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명백히 알고 일해나가도록 예견성있게 대책을 세웠다.

이미 있던 잔디를 들어내고 자갈과 구운흙펴기, 부식토깔기를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 훌륭하게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잔디밭조성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잔디밭조성에서 많은 몫을 맡은 편의봉사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시작부터 혁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뜨거운 향토애를 지니고 많은 량의 구운흙과 질좋은 부식토를 마련한데 기초하여 잔디밭조성을 힘있게 내밀었다.

구역안의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 동인민반원들도 매일 맡겨진 과제를 넘쳐 수행하며 자갈과 구운흙펴기, 부식토깔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해나갔다.

결과 잔디밭조성사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게 되였다.

이 성과에 토대하여 원림사업소에서는 씨뿌리기를 일정계획대로 진행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땅의 수평상태와 평당 씨뿌림량 등을 철저히 따져보면서 씨뿌리기를 다그쳐나갔다.

이와 함께 씨뿌리기를 하는족족 그 관리를 잘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웠다.

지금 구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로 조성한 잔디밭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주 창 일

수종이 좋은 나무모관리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간다.
—김책시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자식을 위해 마음쓰는 어머니처럼

신천광산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대중은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처럼 자기들의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마음을 쓰며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일군을 따른다. 신천광산 종업원들이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을 어머니처럼 따르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중은 자기들을 아끼며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일군들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지난해 6월 어느 한 협의회에서 신천광산 초급당비서 박근식동무가 마산갱가까이에 있던 종합건물을 헐어버리고 현장가까이에 새로 짓자는 의견을 내놓았을 때였다.

협의회참가자들은 의아해하였다. 현장에서 마산갱 종합건물까지는 불과 500m 되나마나하였다. 광부들이 이것때문에 의견을 제기한적은 없었다. 다시 짓자면 품이 여간 들지 않을것이였다. 하지만 초급당일군은 궂은날이면 문밖에 나서기 썰렁해할 광부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난 종합건물을 볼 때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활상애로 같은것은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일밖에 모르는 광부들이 아닙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온갖 고생도 달게 여기는 어머니가 되자면 아직 멀었다고봅니다. 우리 이번에 어머니구실을 해봅시다!》

그의 말은 일군들에게 종업원들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관점을 새겨주었다. 그후 일군들과 비생산부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로 돌격대가 조직되였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그날부터 지배인,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의 위치는 사무실이 아니라 공사장의 가장 어려운 곳이였다.

목재운반전투가 벌어졌을 때에는 끌바를 메고 앞장에서 달리면서 전투지휘를 해나갔다. 쉴참에는 채벌장이 들썩하게 오락회도 조직하여 분위기를 돋구었다. 혁명가요가 그칠새 없이 울리고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되는 가운데 이들은 수십㎥의 목재를 자체로 해결하였다. 두달후에는 마산갱옆에 선전실과 탈의실, 충전실, 창고를 갖춘 멋쟁이종합건물이 일떠섰다. 광부들 모두가 좋아하였다.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를 주면 열, 백을 더 주고싶어하는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곳 광부들이 초급당비서를 한가정의 어머니처럼 따르는것은 우연치 않다.

돌이켜보면 그는 광부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해놓는데서 당일군의 보람을 찾으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을 해왔다.

나라가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할 때에도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수많은 살림집을 건설하였고 버럭산을 개간하여 수십정보의 부업밭을 만들었다.

축산기지, 양어장, 감나무밭, 20여정보의 땔나무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주저앉았던 광산을 추켜세우고 그들을 위해 소문없이 많은 일을 한 그를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주시였다.

웬만한 일군같으면 해놓은 일에 만족을 느낄수도 있었다. 하지만 종업원들을 위한 그의 복무관점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며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있다. 이런 일군이기에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생산은 생산대로 밀고나가면서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광부원과 로동자합숙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였던것이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광산진료소에 치료실들을 번듯하게 꾸려놓아 광부들이 치료를 잘 받을수 있게 하였다. 축산기지도 더 늘구어 종업원들에게 고기를 넉넉히 공급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광산구내를 발목이 시도록 밟으며 물원천을 찾아내여 광산의 모든 종업원들이 수질이 좋은 물을 마음껏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언제 한번 고생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다. 그러니 왜 종업원들이 그를 한가정의 어머니처럼 따르지 않겠는가.

당일군들이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자면 늘 자식을 위해 마음을 쓰는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로동자들의 기쁨에서 찾는 보람

구성방직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하여 하신 말씀을 전달받았던 2년전 12월 어느날 구성방직공장 초급당비서 김봉희동무는 오래도록 사무실을 떠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돌리지 못했던 정양소의 건물이 눈앞에 어려오면서 죄책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던것이다.

정양소를 새 세기의 맛이 나게 번듯하게 새로 일떠세울 생각은 하면서도 거기에 들 자재때문에 용단을 내리지 못했던 그였다.

이런 때 지배인 우용남동무가 초급당비서를 찾아왔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흐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게 되니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다고 하면서 정양소건설문제를 꺼내는것이였다. 두 일군의 마음은 하나로 합쳐졌다.

지배인은 정양소의 설계와 건설에 필요한 자재는 자신이 당적분공으로 맡아안고 뛰겠다고 하였다.

그후 일군들은 여러 설계기관에 찾아가 배우기도 하고 오랜 로동자들과 토론도 심화시키면서 정양소설계를 제일 좋은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정양소건물을 앉힐 자리를 확정하는데도 큰 품을 넣었다. 공장구내의 한쪽켠에는 잣나무며 은행나무 등이 울창하게 들어서고 골짜기에서 흐르는 시내물소리가 유정하게 들려오는 곳이 있었다. 정양소자리로는 명당자리였다. 그런데 그곳으로 말하면 두동의 건물을 철거시켜 다른 곳에 옮겨지어야 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로동자들을 위해서는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일군들의 립장이였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생산을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정양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철근, 타일을 해결하기 위해 뛰고 또 뛰였다.

공장일군들의 이런 깊은 관심속에 2층으로 된 정양소건물이 일떠서고 그 내부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잘 꾸려지게 되였다.

일군들은 친부모의 심정으로 집기류와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 록화기도 새것으로 갖추어주고 악기와 체육오락기재들도 마련해주어 로동자들이 정양생활을 즐겁게 할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구비해놓았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련이어 로동자합숙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공장의 일군들이 한개 호실씩 담당하고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는 방법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로동자합숙도 짧은 기간에 잘 꾸려놓게 되였다.

공장일군들의 헌신성에 감동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수십대의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와 록화기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초급당일군들은 합숙을 새로 꾸려준데 만족해하지 않고 합숙생들을 위해 친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특히 부모잃은 합숙생들을 위해 바친 진정은 참으로 뜨거웠다.

하기에 로동자합숙의 호실들에서는 언제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온 공장에 따뜻한 정이 차흐르고 혁명적랑만이 넘쳐났다.

이렇듯 로동자들을 위한 일군들의 진정은 힘있는 정치사업이 되여 공장을 혁신의 불도가니로 만들었다.

로동자들의 기쁨에 넘친 모습을 보며 공장의 일군들은 그들을 위해 헌신의 땀을 흘린 보람을 한껏 느끼고있다.

본사기자 리 종 석

년간계획을 끝낸 기세로

우시군종이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이공장들에서 종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 종이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시군종이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종이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10월 17일까지 공장앞에 맡겨진 년간생산계획을 200%이상으로 넘쳐 수행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종이제품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공장에서는 필기용지, 학습장, 사무용지, 포장용지, 위생종이를 비롯한 10여가지가 넘는 종이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군의 주민들에게 더 많은 종이제품을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종이생산의 기본원료인 통나무를 넉넉히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초지, 학용품작업반들에서 생산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여 종이와 종이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있다.

초지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종이생산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종이생산계획을 매월 넘쳐 수행하고있다. 학용품작업반의 로동자들도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면서 학습장, 사무용지, 필기용지, 단어장을 비롯한 많은 종이제품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자체로 초지작업반에 위생종이생산설비를 갖추어놓고 매달 많은 위생종이를 생산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종이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종이의 질을 높이고 종이제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공장에서는 콤퓨터조종실을 새로 꾸리고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초지생산공정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였다. 초지생산공정의 정보화, 과학화가 실현되여 같은 량의 종이원료로 종전보다 더 많은 종이를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특파기자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최첨단의 앞장에서 내달릴 불타는 지향과 열정

제5차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를 두고

얼마전에 열렸던 제5차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는 최첨단돌파전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우리 청년들의 열정과 기개를 힘있게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전시회에 출품된 1 500여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정보기술제품들은 새 세대 인재들의 두뇌전, 실력전의 빛나는 창조물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 과학과 기술발전에서 선구자가 되여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90여개 대학, 전문학교 수백명 학생들이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안고 전시회장으로 달려왔다.

참가자들과 참관자들로 붐비였던 전시회장에서 우리는 새것에 대한 지향과 탐구열의로 불타는 우리 청년들의 미더운 모습을 보게 되였다.

전시회장에서 우리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인 김금철, 김성일동무들을 만나 이번 전시회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의 출품건수는 지난해에 비하여 1.8배로서 그 분야와 폭이 더욱 넓어졌다. 사회과학과 기초과학분야의 교육지원프로그람들, 농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들이 다 전시되였다.

이것은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되려는 청년대학생들의 열의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었다.

독특하고 기발한 착상을 떠나 새 세대 인재들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유전학분야에서 쓰이는 방법을 토지정리설계에 적용하여 과학적인 계획지형면을 얻을수 있게 함으로써 설계속도를 앞당기고 공사량도 훨씬 줄이게 해준다는 청진농업대학에서 출품한 프로그람도 감탄할만 하지만 평성수의축산대학에서 내놓은 천연우황생산기술도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소의 부림능력과 젖, 고기생산에는 아무러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우황생성미생물을 체외확대배양시켜 천연우황생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는 이 대학 학생인 한충혁동무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건물정보모형에 기초한 건축 및 건설부문 5차원설계에서 협동설계체계의 기술적기초에 대한 프로그람들을 내놓은 평양건축종합대학의 학생들도 첨단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청년들이였다.

이들만이 아니다.

이동대차의 높이가 낮은 천정기중기를 착상한 허룡민동무와 방향성타격파피절단기에 새로운 지구를 받아들여 여러가지 형강들도 손쉽게 절단할수 있는 형강고속충격절단기를 개발한 김명철동무를 비롯한 청진광산금속대학의 학생들, 국부망설계 및 모의프로그람과 방송콤퓨터조종체계 등을 내놓은 희천공업대학 학생들모두가 뛰여난 착상능력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새 세대 청년들은 누구나 다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가 되고 새 기술의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첨단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는 투쟁에서 1번수가 되려는 결심이 이들의 얼굴마다에 어려있었다.

전시회에는 농업과 경공업부문의 성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신 농업과 경공업전선에서 탐구의 나래를 펼쳐가고있는 청년대학생들의 미덥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성과들을 보면서 우리의 감동은 더욱 깊어졌다.

이번 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록색먹이첨가제〈신흥790〉》를 보아도 그렇다.

원산농업종합대학의 김일문학생이 출품한 이 발명품은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현대적인 축산기지로 전변되고 있는 세포등판에서 염소와 양을 기르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귀중한 과학기술성과이다.

토끼비루스성출혈병의 예방 및 응급접종에 리용할수 있는 주사약을 개발한 송현준동무를 비롯한 이 대학 학생들모두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연구과제들을 틀어쥐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왔다.

맥주와 된장, 간장의 질제고를 위한 연구성과를 비롯하여 경공업부문에서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은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의 식료공학부, 방직공학부 학생들도 그렇고 종이공장폐설물과 지방에 흔한 찰흙질성분을 가지고 기계기름세척제를 개발함으로써 광산에서 설비들의 가동에 큰 도움을 준 청진광산금속대학의 림옥주동무를 비롯한 미더운 새 세대들이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나가는데서 한몫하고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출품한 연구성과들, 조선체육대학에서 개발한 체육교육과 훈련지원프로그람들이 가지는 의의도 컸다.

청년대학생들은 책상우에서만 탐구의 세계를 펼치지 않았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비약하는 조국의 숨결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들끓는 현실에 뛰여든 우리 청년대학생들이였다.

함흥화학공업대학 동해혁학생의 탐구과정이 그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실습기간에 들끓는 현장에서 의의있는 연구종자를 찾아쥐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그의 과학기술성과는 각종 유압식륜전기재들에서 알루미니움합금재질로 된 기름뽐프의 마모된 부분을 정밀재생도금하는데 리용되는것으로 하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조군실원산공업대학의 정윤영, 임충국, 김철민학생들도 안변규소카리비료공장에 나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자체의 힘으로 기판제작과 프로그람개발을 다그쳐 공장의 통합생산조종체계를 훌륭히 완성함으로써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학급전원이 전시회에 참가한 단위들도 있었다.

원산농업종합대학 농업생물학부 4학년 학급학생들, 함흥화학공업대학 엄금석동무를 비롯한 학급성원들모두가 한가지 이상의 연구성과들을 가지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지식과 생산의 일체화가 실현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배운 지식을 제때에 생산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학생들의 열의도 좋지만 집단주의의 위력, 동지적협조로 새 기술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일본새, 연구기풍은 또 얼마나 미더운것인가.

더 많은 교육지원프로그람들을 개발할 열의에 넘쳐있는 남포사범대학의 김일창, 박성희동무들, 그들만이 아닌 전시회참가자들과 참관자들의 결의도 한결같았다.

이들의 가슴을 끓게 하는 창조의 열원은 무엇이였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과학기술로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이려는 불타는 애국심이였다.

이들의 나이는 평균 20살이였다. 우리는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꽃피워주는 밑거름이 되여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온 교육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다는 알수 없었다. 그러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체계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배우는 앞날의 인재들, 나라의 번영을 담보해줄 이런 귀중한 보배들이 끊임없이 자라나고있다는 확신으로 가슴은 끝없이 설레였다.

이런 청년인재들에 의하여 약동하는 젊음으로 더욱 비약해나갈 조국의 래일이 우리의 눈앞에 안겨오고있었다.

본사기자 공로혁

체육시설을 꾸리는데 큰 힘을

청진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들의 체육문화적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나라의 체육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맞게 현대적인 체육시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체육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가는 속에 함경북도에서 청진시의 곳곳에 체육시설들을 새로 훌륭히 꾸려놓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와 청진시당위원회에서는 청진경기장개건보수사업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매 구역들의 체육시설들을 개건보수하거나 새로 꾸리는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매 구역들마다에 특성에 맞게 로라스케트장들이 새로 건설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특히 송평구역에서는 일군들과 제철동, 강덕2동, 사봉동을 비롯한 구역안의 인민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짧은 기간에 수천㎥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천㎡의 로라스케트주로포장작업과 그 주위의 잔디밭조성사업을 와닥닥 해제낌으로써 구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좋은 체육환경을 마련해놓았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체육선수후비육성에 필요한 체육시설들을 더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이 직접 포항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 여러차례 나가 사격훈련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사격훈련장건물의 내외부가 번듯하게 꾸려지도록 자재와 로력보장대책을 세운 다음에는 공사추진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뿐만아니라 사격종목학생들이 훈련을 더 잘할수 있도록 모방훈련기재도 수십점이나 갖추어주고 랭온풍기와 사격목표판 조명장치들도 품들여 구하여 설치해주게 하였다.

포항구역당위원회의 책임일군도 공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를 해결해주었다.

포항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 사격훈련장이 새로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사격지도교원들인 정호철, 리광호동무들은 새로 꾸려진 사격훈련장에서 보다 과학적인 훈련지도를 적극 실현하여 학교학생들이 올해에 진행된 제50차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 사격경기에서 우승컵과 금메달을 포함하여 수십개의 메달들을 획득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당위원회와 포항구역당위원회의 일군들은 포항구역청소년체육학교의 지도교원들과 학생들이 더 훌륭한 체육경기성과를 이룩하도록 다른 체육종목훈련장들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현재 송구훈련장을 개건하기 위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주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남포수산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학생들의 실천실기능력을 높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4일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인류자주위업수행과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은 후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중대한 사업이며 그것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랑림군의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교육수단들과 교육기자재들을 더 많이 마련하여 학교들에 보내주는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군에서는 콤퓨터, 천연색텔레비존수상기, 록화기를 비롯한 수백대의 교육설비들을 초, 고급중학교들에 보내주었다. 올해에도 군에서는 200여대의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마련하여 초, 고급중학교들과 분교들에 보내주었다. 군의 모든 학교들에서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는 속에 산골학교들에서도 다매체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보다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

랑림군에서

군당위원회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계속 높이면서 선군조선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보다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군에서는 갈점고급중학교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고급중학교들을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리는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군의 일군들은 도시경영사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학교건설과 건물보수를 책임적으로 맡아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세멘트, 강재, 목재 등 교육부문에 필요한 건설자재와 보수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게 하고있다.

2년 남짓한 기간 군에서는 읍소학교, 련화고급중학교를 비롯한 5개의 소학교와 고급중학교를 새로 건설하고 교육위원회와의 련계밑에 중흥, 인산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구에 분교들을 새로 내왔다. 군급기관들과 공장, 협동농장을 비롯한 후원단위들에서 학교들을 후대교육의 거점답게 더 잘 꾸려주기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져 두메산골 농촌학교들과 분교들의 면모가 더욱 일신되고있다.

군에서는 상신원, 하신원지구의 수십명 학생들과 림산사업소 로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통학렬차, 통학배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군에서는 후대교육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교원들이 직업적혁명가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도록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고있다. 부부교원, 모범교수자, 년한이 오래거나 공로있는 교원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여러 계기들에 잘해주고있다. 특히 산골분교들에 나가있는 교원들에게 살림집을 먼저 배정하고 생활필수품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군에서는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교육부문 일군들은 교원들이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능숙히 다루면서 담당과목들에 대한 다매체교육, 원격강의도 잘할수 있도록 재교육강습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조직하고있다. 그리고 학교별, 학년별로 학생들의 실력을 놓고 교원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사업을 정상화하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학교교육사업과 후원단위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좋은 성과와 경험을 교육소개판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사업이 심화되고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학과실력이 높아지고 학교지원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제24차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 페막

10월 29일에 개막되였던 제24차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가 페막되였다.

경연 및 전시회기간 영—조, 중—조기계번역프로그람경연, 체육경기모의분석프로그람경연 등이 진행되였으며 정보기술교류와 프로그람봉사도 있었다.

콤퓨터화전시 성, 중앙기관부문에서는 재정성이 특등, 체신성, 경공업성, 농업성, 륙해운성, 보건성, 국가품질감독위원회가 1등을, 공장, 기업소부문에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안북도수출입품검사검역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프로그람전시부문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이 특등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중앙과학기술통보사, 희천공업대학을 비롯한 단위들에서 출품한 130여건이 우승하였다.

영—조, 중—조기계번역프로그람경연에서 평양정보기술국,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원격교육프로그람경연에서 원격교육봉사체계 《룡남산》(**김일성**종합대학)외 2건이 첫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여러 프로그람경연에서 김형직사범대학, 체육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이 제출한 프로그람들이 1등으로 평가되였다.

첨단프로그람경쟁과 프로그람도입경쟁부문으로 나뉘여 열린 프로그람경쟁부문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공업정보연구중심 등에서 내놓은 프로그람들이 1등을 하였다.

이번 경연 및 전시회 도별종합순위에서는 평양시, 함경남도가 1등을, 평안남도가 2등을, 남포시가 3등을 하였다.

페막식이 4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김재성전자공업상, 관계부문 일군들, 프로그람개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페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였으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우승기와 프로그람등록증, 메달이 수여되고 시상이 있었다.

최상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페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어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일우호친선협회 고문이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일행을 만났다

조일우호친선협회 고문인 김영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4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인 이노끼 간지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참가하였다.

브라질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딜마 바나 로우쎄프 브라질련방공화국 대통령에게 10월 31일 김태종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딜마 바나 로우쎄프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여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하는 자신과 브라질정부와 인민의 따뜻한 인사를 그이께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조일우호친선협회와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체육평화교류협회사이의 평양대리사무소개설에 관한 합의서 조인

조일우호친선협회와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체육평화교류협회사이의 평양대리사무소개설에 관한 합의서가 4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마철수서기장을 비롯한 조일우호친선협회 성원들이, 상대측에서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체육평화교류협회 리사장인 이노끼 간지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과 일행이 참가하였다.

마철수서기장과 이노끼 간지 리사장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우호적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데 목적을 둔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 평양대리사무소는 두 나라사이에 체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호상련계 및 대리업무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중국방문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출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장윤곤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이 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을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전송하였다.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일행 도착

무대위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와 일행이 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씨다르또 다누쑤브로또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대표단이 4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은 이밖에 문수물놀이장, 선흥식료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검찰소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사이의 협조에 관한 량해문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검찰소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사이의 협조에 관한 량해문이 베이징에서 조인되였다.

리철 최고검찰소 제1부소장과 호택군 최고인민검찰원 상무부검찰장이 량해문에 수표하였다.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도착

웬껌뚜 공업 및 상업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이 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대표단 도착

이브라힘 이브라힘 이스마일 국제관계 및 협조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대표단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대표단 귀국

씨다르또 다누쑤브로또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대표단이 4일 귀국하였다.

비행장 국기게양대들에는 우리 나라와 인도네시아기발이 나붓기고있었다.

비행장에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길철혁, 문상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나스리 구스따만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선수들

제3차 아시아청년장애자경기대회에서 성과 달성

말레이시아의 꾸알라 룸뿌르에서 진행된 제3차 아시아청년장애자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42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림주성선수는 S6부류자유영 100m경기와 S6부류배영 100m경기에서 각각 2위, 리철성, 마유철선수들은 탁구 TT9부류 남자단체경기에서 2위, 리철성선수는 탁구 TT9부류 남자단식경기에서 3위를 하였다.

결과 우리 선수들은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도이췰란드영화상영주간 개막

도이췰란드영화상영주간이 개막되였다.

개막식이 4일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과 주조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도이췰란드손님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도이췰란드예술영화 《베른의 기적》을 감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활짝 꽃펴나는 오늘의 현실을 대할 때마다 가슴뿌듯이 느껴지는 우리 조국,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 뜻밖의 일로 심한 화상을 당하여 사경에 처했던 저의 손자가 금천군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나게 되였습니다.

이름없는 로동자의 자식을 위해 수십차례의 의사협의회가 진행되고 온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이 우리 손자의 할아버지, 큰엄마, 이모, 삼촌이 되여 백수십일간이나 밤을 꼬박 지새우며 뜨거운 지성을 기울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인간사랑의 대화원이 있어 불구의 몸이 될번 하였던 저의 손자는 원상대로 회복되여 올해 국제아동절에는 유치원에서 진행된 체육경기에 참가하여 마음껏 뛰여놀수 있게 되였습니다. 재롱을 피우는 손자의 모습과 함께 온 집안에 또다시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여나게 되였습니다.

저의 온 가족, 친척들은 내 조국의 고마움을 다시금 폐부로 절감하며 이렇게 소리높이 웨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친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행복만이 차넘칠것이라고 말입니다.

황해북도 금천군 읍 116인민반 림명월

외세의존의 더러운 악습을 버려야 한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협력을 실현하고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남조선에서 올해에 《정권》이 바뀌였다고 하지만 북남관계는 좀처럼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 근본원인은 괴뢰집권세력이 《신뢰프로세스》라는 대결정책을 들고나와 외세와 반공화국공조를 강화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북침을 위한 군사적도발에 계속 매달리고있기때문이다. 괴뢰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동족과 대결하려는것은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이다.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한길로 꿋꿋이 나아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는 괴뢰들의 매국반역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수 없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다.

우리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이지 결코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 위한 통일이 아니다.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도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외세에게 빼앗긴 자주권을 되찾고 통일된 조국에서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것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여 자기 힘으로 민족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조국통일에 리해관계를 가지는것도 우리 민족이고 통일문제를 맡아 수행하여야 할 주인도 우리 겨레이다. 조국통일위업이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여 해결하여야 할 위업인것만큼 나라의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는 원칙,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6.15통일시대의 위대한 기치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자주원칙의 구현이며 그 발현이다. 우리 민족끼리에 기초할 때 북남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것은 이미 실천으로 확증되였다.

자주의 원칙에 배치되는것은 외세의존이다. 외세에 의존하면 그의 간섭을 허용하게 되고 나아가서 외세의 하수인이 되여 민족의 운명을 망치게 된다.

남조선괴뢰패당이 동족은 적대시하면서 외세와의 《동맹》강화에 발광적으로 매달리는것은 외세의존정책의 집중적발로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시기를 연기하면서까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못박아두려 하고있으며 위험천만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과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핵전쟁각본인 《맞춤형억제전략》에 맞도장을 누르고 미제의 핵전략폭격기들과 핵항공모함을 끌어들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는 괴뢰호전광들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외세와의 북침전쟁공조를 강화하여 우리를 기어이 무력으로 해치려는것이라는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조국강토에 외래침략무력을 끌어들이며 그의 더러운 앞잡이가 되여 민족을 반역하고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괴뢰패당의 책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나라의 평화, 통일에 엄중한 장애로 되고있다.

력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에 있었던 민족적불행과 재난은 외국군대의 침략과 강점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그런데 괴뢰들은 이 엄연한 력사의 교훈을 외면하고 오늘도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고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미국은 나라를 분렬시키고 민족적불행과 재난을 들씌우고있는 원흉이며 조국통일을 방해하고있는 기본장본인이다.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평등한 동맹자가 아니다. 미국은 남조선통치배들의 상전이고 지배자이며 괴뢰들은 미국에 얽매인 주구이며 노복일뿐이다. 미국의 지지와 승인이 없이는 누구도 《대통령》이 될수 없고 미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서는 발언도 행동도 제 마음대로 할수 없는것이 괴뢰들의 가련한 신세이다.

자주성도 없고 아무런 실권도 없는 괴뢰들이 그 주제에 뻔질나게 해외행각놀음을 벌리면서 다른 나라들과 《정상회담》을 벌린다 어쩐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 무슨 《선진국》냄새를 피우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괴뢰들이 외세의 바지가랭이에 매여달리면 달릴수록 차례지는것이란 쓰디쓴 랭대와 수치뿐이다. 대국들의 짬에 끼워 숨가삐 돌아가는 괴뢰당국자들이 얼마나 보기 민망스러웠으면 남조선언론들이 《줄타기외교로 진땀을 빼고있다.》고 평하였겠는가. 남조선언론들이 괴뢰당국의 그 무슨 《외교정책》이라는데 대해 집권초기에 벌써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지 않겠는지 의심스럽다고 야유, 조소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력사와 현실은 자주권을 잃고 외세에 의존하며 동족을 반대해나서는것은 수치와 파멸의 길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민족자주냐 외세의존이냐 하는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괴뢰집권세력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과 대결하는 매국반역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제 가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설 때에만이 북남관계도 개선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도 열릴수 있다. 자주의 원칙을 부정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해보려는것은 어리석은짓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외면하고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돌아치는것은 씻을수 없는 반역죄로 된다. 그런자들은 두고두고 력사와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며 신성한 조국땅에 죽어묻힐 자리조차 없게 될것이다.

민족자주력량과 외세의존세력사이의 첨예한 대결을 동반하고있는 오늘의 조국통일투쟁에서 승리는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자주적운명개척의 길을 열어나가는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에게 있다.

최 철 순

《3.15부정선거》를 릉가하는 정치쿠데타

최근 남조선에서 지난 《대통령선거》때 보수패당이 괴뢰정보원과 군부, 보훈처는 물론 경찰, 고용로동부, 통일부까지 총발동하여 부정행위를 일삼은것이 드러나 각계층의 분노가 폭발하고있다. 도처에서 괴뢰보수패당의 부정협잡《선거》를 규탄하는 대중적인 초불집회와 시위, 시국선언문발표와 기자회견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투쟁이 전개되고 《선거무효》, 《탄핵》을 주장하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권력기관들의 불법적인 대규모《선거》개입사실을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며 현 집권자가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얼마전 《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규탄 비상시국회의》의 주최로 열린 초불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은 불법으로 치른 《선거》에 의한 《당선은 무효》라고 하면서 집권자가 사죄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초불을 절대로 내리우지 않을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였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대통령선거》는 정보원을 비롯한 괴뢰권력기관들이 총발동되여 인터네트에 의한 여론조작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며 현 집권자의 당선을 조작해낸 관권《선거》의 전형으로서 사실상 불법무법의 《선거》쿠데타였다. 괴뢰정보원과 괴뢰군싸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요원들은 야당후보들을 《종북》이니 뭐니 하고 터무니없이 비방중상하는 모략글들을 무더기로 꾸며내여 인터네트로 류포시켰다. 현재 폭로된것만 해도 여론조작에 리용된 글은 5만6 000건에 달한다. 여기에 탕진된 돈은 무려 1억US$에 이른다고 한다.

총체적인 관권부정《선거》로서의 지난 《대통령선거》의 어둑시근한 내막이 말짱 드러나게 되자 바빠맞은 《새누리당》패거리들은 괴뢰정보원과 한짝이 되여 《선거》부정행위를 덮어버리기 위해 비렬하게 놀아대는가 하면 야당세력을 《선거불복》세력으로 몰면서 위기에서 헤여나보려고 발악하고있다. 현 괴뢰집권자도 사건이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여서 자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며 아닌보살하고있다.

하지만 《유신》독재체제를 전면적으로 되살릴 야망에 사로잡혀 민심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참히 유린하며 최대최악의 《선거》협잡행위를 저지른 괴뢰보수패당의 더러운 정체는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수 없다. 최근의 남조선사태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괴뢰보수패당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악랄하게 역행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열망을 억누르고 《유신》파쑈독재를 공공연히 부활시키는 불법무도한 집단, 정치쿠데타세력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의 지난해 《대통령선거》는 리승만역도의 《3.15부정선거》를 련상케 한다. 1960년 3월 15일 괴뢰도당은 무너져가는 《정권》을 어떻게 하나 유지할 계책밑에 무시무시한 테로와 폭압, 온갖 부정협잡으로 제4대 《정, 부통령선거》라는것을 강행하였다. 이것은 리승만독재《정권》을 파멸에로 몰아넣은 4.19인민봉기의 발단으로 되였다.

지난 《대통령선거》야말로 명백히 《3.15부정선거》보다 더한 사상 류례없는 특대권력형부정《선거》이다. 이것을 남조선인민들이 어떻게 용납할수 있겠는가. 과거 독재시대의 파쑈적수법에 공공연히 매달리며 《정권》을 강탈하고 《유신》체제구축에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괴뢰보수패당의 망동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실현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괴뢰보수패당의 《대통령선거》부정협잡행위를 울분에 넘쳐 단죄규탄하면서 반《정부》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은 불의와 독재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민주화된 새세상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강렬한 의지의 과시이다.

괴뢰집권세력이 아무리 오그랑수를 쓰며 민심의 분노를 눅잦히고 위기를 수습하려고 발광해도 소용이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파쑈독재자들을 파멸의 함정에 몰아넣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이어갈것이며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라 설 하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남조선당국의 파쑈적폭거를 강력히 규탄

방글라데슈정당들이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는 남조선괴뢰당국의 파쑈적폭거를 규탄하여 10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은 지금 남조선당국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놀음을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합법적정당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강제해산책동은 세인을 경악케 하고있다.

오늘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나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활동의 권리가 보장되고있으며 좌익정당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있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강제해산책동을 사회의 민주화와 정치활동의 진정한 자유를 요구하는 절대다수 남조선근로대중에 대한 용납 못할 파쑈적폭거로 락인한다.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제창하는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남조선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놀음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남조선의 어느 정당이나 자기의 정치적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의해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한다.

* *

로씨야, 뻬루의 친선단체가 남조선괴뢰보수패당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로씨야 까렐리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는 10월 28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통합진보당은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합법적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련계시키면서 강제해산시키려고 하는것은 동족대결과 함께 저들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정당, 단체들까지도 무자비하게 탄압말살하는 현 남조선당국의 비렬하고 파쑈적인 정치모략극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을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간주하면서 준렬히 단죄한다.

빼루조선친선문화협회는 10월 27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단죄하였다.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는 남조선극우익반동세력의 책동은 누가 진정으로 통일과 민주주의를 바라는가를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합법적인 정당, 단체들의 정치활동과 사회활동의 자유를 유린하려는 반동세력들에게 묻는다.

외세를 몰아내고 대화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 전체 조선민족의 소원이 아니란 말인가?

지구상의 어느곳에서나 허용되는 정당, 단체들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될수 없다면 남조선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혼란에 빠진 남조선정치권

남조선에서 괴뢰정보원선거개입사건을 둘러싸고 정국이 혼란속에 빠져들고있다.

지난해 괴뢰대통령선거때 정보원패거리들이 《새누리당》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여론조작을 벌린 사실자료들이 계속 밝혀지면서 야당과 여당간의 공방전이 더 격렬해지고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선거기간 정보원심리전단 직원들이 5만5 000여회에 걸쳐 여당후보를 지지하고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여론조작행위를 벌린데 대해 까밝히였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괴뢰정보원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조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모든 사실은 《정보원이 대선당시 박근혜후보의 선거팀이였음을 증명해준다.》고 공격하였다.

바빠맞은 《새누리당》은 《사실이 아니》라느니, 《불법취득한 정보이기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느니 뭐니 하며 아닌보살하였다.

괴뢰정보원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조를 책임졌던 윤석열이 정보원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박근혜패당이 압력을 가한데 대해 증언함으로써 야당과 여당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여가고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자기가 지난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영곤을 찾아가 선거여론조작행위를 벌린 정보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수색할데 대해서와 앞으로의 수사계획에 대해 보고하자 그가 몹시 성을 내며 야당을 유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고 하면서 반대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윤석열은 당국의 압력으로 특별수사조의 업무에서 배제되여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윤석열이 특별수사업무에서 배제된것은 박근혜《정부》의 검찰장악의도, 정보원을 살리기 위한 검찰죽이기라고 강경하게 나오고있다. 《대통령선거》는 총체적으로 볼 때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박근혜의 사죄와 법무부 장관, 정보원 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사퇴를 주장하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선거패배의 한풀이를 하며 정치공세에 매달리고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 야당의 비난을 막고 사건의 진상을 덮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괴뢰법무부가 특별수사조에 정보원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축소할데 대해 요구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남조선정계는 더 큰 혼란의 회오리바람에 휘말려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은 필승불패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애국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 최근년간 조국땅에 체육열풍이 휘몰아쳐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속에 재일동포체육인들도 이역땅에서 민족의 기개를 높이 떨치고있다. 최근 그들이 련이어 거두고있는 자랑찬 승리는 애국운동에 떨쳐나선 동포대중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민족교육이 낳은 승리

지난 8월초 일본 사가현에서는 일본전국고등학교종합체육대회 권투경기가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총련 오사까조선고급학교 리건태, 리권지, 정진, 고베조선고급학교 김인제, 조광대선수들이 출전하였다.

강의한 의지로 뛰고 또 뛰는 그들의 모습에는 역경을 오히려 힘의 원천으로 만들어온 동포사회의 넋과 기개가 어려있었다. 단결력이 강하며 민족의 기개를 떨치려는 지향도 열렬한 우리 선수들의 경기모습에 일본인관람자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일본 각지의 수많은 동포들이 달려와 열광적인 응원바다를 펼쳐놓았다.

이 경기 라이트급에서는 리건태선수가 맞다드는 상대선수들을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기고 우승의 단상에 올랐다. 그는 자기의 오른쪽주먹에는 조선민족의 긍지를, 왼쪽주먹에는 동포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겠다는 마음을 담아 완강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이번 승리를 안아왔다.

리건태선수는 일본전국민체육대회 권투경기와 전국고등학교종합체육대회, 전국고등학교권투선발대회, 전국고등학교권투선발선수권대회 우승자이다. 이번 승리로 그는 일본의 전국적인 체육경기들에서 다섯번이나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진선수는 미들급경기에서 3위를 쟁취하였다.

이로써 총련 오사까조선고급학교팀은 학교별종합성적에서 2위를 쟁취하였다. 일본의 근1 000개 고등학교팀가운데서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성적이다. 그야말로 민족교육이 낳은 승리였다.

우리 동포들의 열렬한 환호속에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의 얼굴마다에는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앞으로도 계속 이역땅에 민족의 기개를 높이 떨쳐나갈 애국의 의지가 비껴있었다.

한편 지난 6월 리렬리선수는 프로권투 동양태평양페자급 왕자결정전에서 치렬한 격전끝에 우승하였다. 그 역시 초급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민족교육을 받은 동포청년이다.

경기는 매우 치렬하였다. 상대선수는 단시간내에 경기를 끝내버리려고 시작부터 완력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리렬리선수는 앞뒤좌우로의 재빠른 이동과 함께 강한 곧추치기와 올려치기 등 자기의 특기를 살리면서 상대방을 제압하였다.

민족교육의 화원속에서 재능의 싹을 키운 우리 동포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은 동포사회를 환희로 들끓게 하고있다.

꿈많은 꼬마선수들

얼마전 오사까에서는 공화국창건 65돐경축 재일조선초급학교 학생중앙축구대회가 진행되였다. 일명 《꼬마축구대회》로 불리우는 이 경기대회는 이번까지 어느덧 35번째의 돌기를 새기면서 나어린 학생들속에 강한 단결력과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 계기로, 동포사회를 흥성거리게 하는 마당으로 되여왔다. 이 대회에 출전하였던 꼬마선수들가운데서 후날 공화국의 국가대표팀선수들을 비롯한 우수한 선수들이 적지 않게 배출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련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 선수들이 영예의 단상에 올랐다. 그들에게는 통쾌한 2련승이였다. 사실 지난해의 우승이후 우승팀에만 주어지는 특전인 조국방문을 진행한 이 학교 꼬마선수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이번 대회에서도 또다시 우승을 쟁취하여 모두가 조국에 가자는 주장이며 문지기인 고태혁학생의 호소는 어린 선수들의 기세를 북돋아주었다. 조황성학생은 건강이 좋지 않아 결승경기전날까지도 병원출입을 한 상태였지만 아픔을 참고 결승경기에 참가하여 귀중한 한꼴을 넣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가한 총련 도꾜조선제9초급학교팀의 김앙미선수는 대회력사상 첫 녀자문지기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좋고 특히 달리기를 잘하였다고 한다. 그의 꿈은 세계적인 강팀인 조국의 녀자축구종합팀에 속해 국제경기에 출전하는것이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앞으로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축구기술을 더욱 련마하고 집단주의정신을 키워 꼭 조국의 국가대표팀 선수로 자라나겠다고, 그래서 월드컵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무대들에서 조국의 영예, 민족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겠다고, 이것이 자기들의 희망이라고 힘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한편 지난 8월초 총련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는 제11차 해바라기컵 재일조선초급학교 학생중앙롱구대회가 진행되였다.

총련 니시도꾜조선제2초급학교 남자팀과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 녀자팀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이 대회도 동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본사기자 허 영 민

《자주민보》사수투쟁에 나설것을 선언

남조선의 《자주민보》폐간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진보적언론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주장하여 10월 28일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은 《자주민보》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위한 보도활동을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보수세력이 《자주민보》를 폐간시키려고 하는것은 진보적인 보도활동이 눈에 거슬렸기때문이라고 까밝혔다.

이 땅이 보수집권여당의 주장과 론리만으로 들어차게 된다면 자주, 민주, 평화통일념원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자주민보》폐간책동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진보적언론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나설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면하여 서울시청이 《자주민보》폐간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낸다면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보수세력의 하수인으로 락인찍고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박근혜《정부》와 보수세력의 속심은 진보세력을 말살하고 초토화하는것이라고 하면서 결의문은 각계가 광란적인 탄압에 맞서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파쑈당국의 언론탄압책동을 반대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보안법》철폐를 주장

남조선의 대전《민중의 힘》이 10월 30일 괴뢰대전지방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악명높은 《보안법》철폐를 주장하였다.

단체는 경찰이 10월 29일 《보안법》위반혐의로 카톨릭대학교 교수였던 강대석의 집에 달려들어 수색소동을 벌린데 대해 언급하였다.

경찰은 그가 2002년 중국연변대학 교수로 있을 당시 현지에서 《북공작원》과 접촉하고 《리적》성격의 강의를 하였다고 걸고들면서 이러한 폭압소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사상과 학문, 표현의 자유는 민중의 기본권리라고 하면서 학계에 대한 탄압은 작가, 예술인들의 표현과 창작의 자유까지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선거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권력으로 가로막고 전교조탄압이 정당, 로동계, 학계에로 이어지고있는 사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력사외곡은 현《정부》의 공포통치, 독재정치와 하나로 련결되여있다고 비난하였다.

《보안법》은 력대로 《정권》에 항거하는 민중들을 탄압하고 민주화와 생존권요구를 짓누르는 도구로 리용되여왔다고 하면서 존재가치를 상실한 악법이 박근혜《정부》에서 활개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규탄하였다.

단체는 반인권, 반민주악법인 《보안법》은 철폐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유신》체제구축을 시사하는 폭압광대극

남조선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날로 첨예화되는 속에 괴뢰보수패당의 진보세력말살책동이 더욱 광기를 띠고있다.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죄》에 걸어 해체소동을 벌려놓은 괴뢰들은 련이어 교원들의 진보적로조인 전교조에 폭압의 칼을 들이대고있다. 이 단체가 9명의 해고자들을 로조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법외로조》로 만들겠다고 위협해온 괴뢰고용로동부는 지난 10월 24일 끝끝내 전교조의 합법적로조지위를 빼앗았다.

그렇다면 괴뢰당국이 과연 몇몇 해고조합원들때문에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존재해온 전교조를 비법화시켰겠는가. 그렇지 않다. 괴뢰패당이 해고자들에게 계속 로조원자격을 주는것은 현행 《교원로조법위반》이라고 떠들며 전교조의 합법적로조지위를 강탈하였지만 그것은 이 단체를 말살하기 위한 한갖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전교조비법화책동은 이 단체에 대한 괴뢰보수패당의 뿌리깊은 악감과 함께 민주화투쟁의 선봉에 서있는 단체를 완전히 제거말살함으로써 사회의 보수화, 체제의 《유신》화를 실현하고 장기집권의 지반을 닦으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원래 전교조의 모체였던 교원로조는 박정희역도가 선포한 《비상계엄령》, 《비상사태》 등의 여러가지 파쑈적조치에 의해 《용공단체》, 《〈정부〉전복세력》으로 몰려 강제해산되였다. 하지만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교원들의 투쟁은 결코 좌절되지 않았다. 그들은 줄기찬 투쟁끝에 1989년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을 결성하고 민주주의실현, 정의구현을 위하여 더욱 피타게 싸워나갔다. 그 과정에 조합원의 수는 무려 10만명으로까지 확대되였고 1999년에는 마침내 합법적인 조직으로 공인되게 되였다.

이러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지켜낸 전교조의 활동이 점차 범위가 넓어지고 반《정부》투쟁력이 강해지자 괴뢰보수패당은 전교조를 또다시 제거할 흉계를 품게 되였다. 괴뢰보수패당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기 시작한것은 리명박역도의 집권때부터이다. 파쑈광들은 전교조의 정당한 활동을 문제시하며 단체성원들을 《보안법》에 걸어 닥치는대로 체포처형하는 한편 교활하게도 조직의 분렬과 단체해산을 노린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괴뢰당국은 2010년 3월, 2012년 9월, 올해 5월과 6월 등 여러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자격을 유지한다는 이 단체의 규약을 개정할것을 강박하였다. 특히 현 괴뢰집권세력은 《정보원대선개입사건》으로 극도의 통치위기가 조성되자 그로부터의 출로를 전교조를 비롯한 핵심적인 진보단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탄압말살하는데서 찾으면서 폭압광기를 부리고있다. 《유신》독재체제를 되살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세력들을 모조리 비법화하고 말살하여 《정권》위기의 근원을 없애고 보수《정권》을 무한정 이어가려는것이 괴뢰들의 계책이다. 이로부터 괴뢰보수패당은 전교조는 위험한 《종북세력》, 《종북의 심장》이라고 고아대며 이 단체를 한사코 해체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민주주의교육의 앞장에서 사회의 정의와 진보를 위해 투쟁해온 전교조는 지금 《정권》위기수습과 장기집권야망실현에 환장이 된 괴뢰보수패당의 불순한 음모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이번에 괴뢰당국에 의해 합법적인 로조단체인 전교조가 비법화된것은 남조선에 과거의 《유신》체제가 다시금 구축되였다는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격분한 남조선 각계는 괴뢰당국의 전교조탄압책동에 강력히 항거해나서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진보세력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정치적음모이며 《정권》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단체들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까밝혔다. 한 로조단체는 괴뢰보수패당이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자 과거 독재자들처럼 총칼로 민중의 눈과 입을 막으려 한다고 하면서 전교조탄압소동은 전지역으로 퍼져가는 민중의 초불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계획적인 모략극이며 정치적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독재체제를 수립하려는 현 집권자의 검은 속심의 발로라고 규탄하였다. 각계 사회단체들은 《유신》독재통치가 부활되였다고 하면서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피어린 민주화투쟁의 전취물은 물론이고 생존권마저 지킬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중의 단합된 투쟁으로 폭압에 맞서 싸울것을 한결같이 호소하고있다.

각계의 지지와 성원밑에 전교조는 괴뢰당국의 탄압에 견결히 맞서 싸우고있다. 10월초부터 전면적인 투쟁에 진입한 전교조는 시국선언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주로조를 지키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의지를 표명하였다. 얼마전 이 단체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뢰고용로동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격하면서 전교조는 마지막까지 9명의 해고자조합원들과 운명을 함께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민주로총의 기발아래 로동자총단결로 로동기본권쟁취하자!》, 《전교조 사수하고 민주로조말살 분쇄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단체는 시위투쟁을 벌리였으며 여기에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독재통치를 반대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합세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지금 장기집권야망에 사로잡혀 민주세력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했던 악명높은 《유신》독재자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현 괴뢰집권세력에 맞서 강도높은 투쟁을 벌려가고있다.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최악의 통치위기에 몰린 괴뢰보수패당이 잔명을 유지하려고 독재와 폭압에 발악적으로 매달리지만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을 막을수 없으며 종당에는 파멸의 운명에 처하고야 말것이다.

라 영 국

탁월한 선군령장을 모시여 만방에 빛을 뿌리는 조선

나라와 민족의 위력과 권위는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있다.

국제사회계는 사상과 령도도, 인격과 덕망도, 배짱과 담력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을 열렬히 칭송하면서 그이를 모신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고있다.

력사에는 한 나라 군대와 인민을 이끄는 국가지도자, 최고사령관으로서 이름을 날린 정치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처럼 그처럼 짧은 기간에 세인의 경탄을 자아낸 위인은 없었다. 이것은 세계정치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일이다.

2011년 12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비분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던 때의 10여일간에 있은 일이다. 미국의 인터네트검색전문웨브싸이트인 구글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전하는 편집물들이 6 740만건이나 올랐다. 이에 대해 미국, 로씨야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 출판보도물들은 보기 드문 놀라운 일이라고 전하였다. 로씨야의 소리방송은 이에 대하여 전하면서 김정은령도자께서 인류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계의 거대한 관심을 모은 세계의 가장 젊으신 령도자로 기록되였다고 보도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해마다 년말이면 그해에 세계에 명성을 떨친 이름있는 위인들에 대하여 알고싶어한다. 1927년부터 년년이 그해의 명인들을 선정발표하고있는 미국잡지 《타임》은 지난해에도 이름있는 정치가, 기업가 등 각계층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명인선정 온라인투표를 진행하였다. 이 투표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첫째가는 명인으로 선정되시였다.

잡지는 투표결과를 전하면서 김정은령도자께서 서거하신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위에 추대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1년간 나라를 강력하게 이끄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도 50여개 출판보도기관들이 《2012중국국제뉴스연단》 년례회의를 열고 명인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회의에서 투표자들의 한결같은 지지에 의하여 해외10대 명인으로 선정되시였다.

절대적인 지지!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으신 신망을 지니고 계시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천재적인 예지와 불철주야의 선군령도로 강성조선의 앞길을 밝히시고 나라의 존엄과 세계평화를 굳건히 수호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은 세계언론의 특보감으로 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출판보도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끊임없는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소식들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있으며 지면을 아끼지 않고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웨치는 군인들에게 오늘 아침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리는데 어서 105땅크사단에 가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귀전에 울려와 그달음으로 찾아왔다고, 105땅크사단은 명칭만 불러보아도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느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최고사령관과 지휘관, 전사들이 팔을 끼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은 이 격동적인 광경을 온 세계가 똑똑히 보았다. 이에 대해 미국의 AP통신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후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시찰하면서 군인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박수도 쳐주었고 지휘관들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귀가에 대고 가르침도 주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부대시찰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병사들의 잠자리를 돌아보았고 지어는 수도꼭지들도 검사해보며 물이 제대로 나오는가를 알아보았다. 김정은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이 나라의 새 령도자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고수할것이라는 명백한 메쎄지를 전하는 동시에 김정은령도자의 사업방식을 시사해준다.》

우리 조국의 승리의 7월에 이어 9월의 대축전장에 터져오르던 만민의 축하와 칭송의 목소리는 우리 당력사에 뜻깊은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10월에도 끝없이 메아리쳤다.

진보적인류는 력사의 온갖 풍파에도 끄떡없이 우리 당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를 비롯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각국의 진보적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성명, 담화를 발표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칭송하고 또 한분의 선군령장을 진두에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그 위용을 떨쳐갈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지난 10월 10일 로씨야의 빠뜨리오뜨신문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 대한 발행식이 진행되였다.

로씨야 빠뜨리오뜨신문사 책임주필 젤스꼬브는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 진행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발행식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단행본에 모신 그이의 존귀하신 영상은 로씨야애국자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안겨준다고 말하였다.

발행식에서 연설자들은 애국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자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애국주의는 한갖 구호가 아니라 곧 실천이다, 바로 이 고귀한 진리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작에서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하시고 조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건설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신다, 조선은 이 세상에서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애국자들의 모범으로 되고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온 누리를 진감하고있는 천출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열기는 세계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고있으며 그이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태양조선의 앞길은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그렇다.

세계가 한결같이 공인하는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곧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이시다.

또 한분의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세계에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긍지높은 력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 특집

조선로동당창건 68돐, 《ㅌ.ㄷ》결성 87돐에 즈음하여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특집하였다.

네팔신문 《고르카 엑스프레스》는 《인민을 이끌어 근 70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로동당이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실수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김정일령도자회고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87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926년 10월 17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날이다.

《ㅌ.ㄷ》가 결성됨으로써 조선혁명은 뚜렷한 투쟁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자주적발전의 길을 걷게 되였으며 조선인민은 력사의 주체로서 자기의 운명을 책임지고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선혁명이 걸어온 근 90성상은 《ㅌ.ㄷ》가 추켜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승리만을 떨쳐온 긍지높은 력사이다.

오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원수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고있다.

김정은원수의 선군령도밑에 《ㅌ.ㄷ》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인디아신문 《인디안 앤드 월드 이벤트》는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ㅌ.ㄷ》의 결성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과 현대조선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바로 거기에서 조선사회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가 내린것이다.

《ㅌ.ㄷ》의 강령은 조선로동당 강령의 기초로 되였다.

《ㅌ.ㄷ》의 리념인 자주성의 원칙은 조선로동당건설과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문제해결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있다.

조선로동당은 《ㅌ.ㄷ》가 추켜들었던 일심단결의 기치를 빛나게 계승해나가고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를 제1비서로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선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육인들을 우대하고있다》

로씨야출판보도물들 강조

로씨야의 출판보도물들이 최근 우리 나라에서 체육발전에 힘을 넣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인터네트통신 드니.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육인들을 우대하고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특출한 성과를 거둔 체육인들에게 모든 조건이 완비된 살림집을 선물로 안겨주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나라의 체육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체육과학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울데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조선에서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조직되여 나라의 체육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있다.

훌륭히 개건된 평양체육관이 얼마전에 개관되였다.

인터네트신문 《브즈글랴드.루》, 에호 모스크비방송 등 출판보도물들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당장 중지하라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주체사상연구소조,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지지하여 10월 2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평화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조선을 반대하는 적대적립장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조선반도수역에 핵추진항공모함을 끌어들이는 등 조선을 반대하는 온갖 호전적도발을 일삼고있다.

이것은 조선의 자주권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서 미국이 떠드는 《평화적공존》이라는것이 기만술책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여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조선이 핵억제력을 갖춘것도 미국의 침략적인 적대시정책의 결과이다.

따라서 조선에 핵포기를 강요하는 미국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조선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나 이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조선에 일방적인 선핵포기를 요구하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을 질식시키기 위한 모략이다.

만일 미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남조선에서 자기의 모든 침략무력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우리는 조선이 자체의 전쟁억제력을 강화해나가는것이 매우 정당하다고 간주한다.

로씨야대통령 통일과 단결의 전통을 고수할데 대해 강조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10월 31일 서한에서 민족적통일과 단결의 전통을 고수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서한에서 로씨야는 민족적통일과 단결, 협조의 전통으로 언제나 강하였다고 하면서 애국주의, 공민적자각, 민족간 화목, 선린, 호상존중은 수세기에 걸쳐 로씨야를 강하게 만든 귀중한 재부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런 도덕적, 정신적지주를 고수해야만 로씨야는 앞으로 전진할수 있으며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대량살륙무기사용을 반대하는 립장 표명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1일 군비축소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대량살륙무기의 사용을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고있다는 인식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는 핵무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것을 결사반대한다고 말하였다.

이란의 우라니움농축계획은 철저히 평화적목적을 위한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의 핵무기관련 시험에 항의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 시장들이 10월 30일 미국집권자에게 각각 항의편지를 보내여 미국의 집요한 핵무력강화책동을 규탄하였다.

편지에서 그들은 미국가핵안전국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강력한 X선을 방출하는 《제트 머쉰》을 리용하여 플루토니움의 성질을 검사하는 시험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한데 대해 문제시하였다.

그러한 시험은 미국이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며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들사이의 협조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10월 30일 군사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해 합의하였다.

같은 날 꾸바와 인디아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 및 무역협조관계를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해산물수출 장성

웰남에서 올해에 들어와 10개월동안에 해산물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 늘어났다. 10월 29일 이 나라 농업 및 농촌개발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대외무역 증대

끼르기즈스딴에서 올해 첫 9개월동안에 대외무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증대되였다.

10월 31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살림집해결노력

베네수엘라정부가 살림집문제해결에 힘을 넣고있다.

10월 28일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4 200세대의 주민들이 새 살림집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2019년까지 주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따른것이라 한다.

사프란수출 장려

이란에서 3월 21일부터 시작된 현 이란년도에 사프란(붓꽃과의 여러해살이 알뿌리화초)수출을 15% 더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최근 이란세관당국은 사프란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이에 부과되던 관세를 페지하였다고 한다.

이 나라 신문 《테헤란 타임스》 10월 29일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홍역예방왁찐수출 계획

브라질에서 홍역예방왁찐을 수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3 000만명분의 수출용왁찐이 생산될것으로 추산되고있다. 나라에서 생산된 왁찐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수출될것이라 한다.

범죄방지투쟁성과

남아프리카에서 최근 범죄방지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10월 31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올해에 살인과 강탈을 비롯한 범죄건수가 2002년에 비해 40% 줄어들었으며 지난 15년래 최저를 기록하였다.

나라에서 범죄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콩크리트구조물의 강도를 높이는 나노첨가제 개발

최근 로씨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콩크리트용나노첨가제를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된 나노첨가제 즉 나노구조화된 탄소재료는 석탄뿐아니라 화학제품을 가지고도 만들수 있다고 한다.

이것을 세멘트총량의 0.01%에 해당한 량만 첨가해도 콩크리트구조물의 강도를 20~25% 높일수 있다.

자연피해

—영국, 도이췰란드 등 유럽의 서북부나라들에 최근 강한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다.

폭풍으로 13명이 목숨을 잃고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일부 해안지역에서 최고풍속은 시간당 160㎞에 달하였다고 한다.

—필리핀의 다바오시에서 10월 31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수백명이 긴급소개되였다.

현지에서 구제사업이 진행되고있다.

—미국 텍사스주의 중부와 동남부지역에서 10월 31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폭풍으로 2명이 목숨을 잃고 1만 2 000명의 주민세대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으며 일부 학교들에서 수업이 중지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망하는 집안에 싸움잦다

얼마전 미백악관은 국가안전보장국이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벌리는 정탐활동에 대해 대통령은 전혀 알지 못하고있었노라고 모르쇠하였다. 그야말로 몸빼기명수들만이 할수 있는 책임회피놀음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대통령이 정보계가 제출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특별정보보고서를 받아보는것으로부터 하루 첫 일을 시작하는것은 굳어진 일과이다. 그런데 백악관이 도청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몰랐다고 아닌보살하는것은 또 무슨 낯도깨비같은 소리인가.

거짓말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백악관은 자기 집권자가 허재비라는것을 공포한것으로 된다. 어쨌든 대통령의 극비지령에 따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탐활동을 열성껏 해온 미국정보계가 저들의 비법도청사건이 내외의 비난을 받자 그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격분을 표시하고 그에 따라 정계와 정보계사이에 서로 책임전가놀음으로 물고뜯는 싸움이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정탐활동에 대한 추문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아마 미국정부는 정보계에 《훈패》를 달아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터진 팔자루가 된 도청사건을 놓고 궁여지책으로 백악관이 나서서 그런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은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 망둥이 제 새끼 잡아먹는것과 같은것이다. 미국이 세계제패를 노린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는 한 그런 아귀다툼은 불가피하다.

망하는 집안에 싸움이 잦다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주권유린에 미쳐돌아가던 미국이 꼴좋게는 되였다.

라명성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 규탄

미군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에 대한 무인기공습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0월 30일 미군무인기가 북부와지리스탄의 미란샤흐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2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였다. 그로 하여 3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다.

파키스탄외무성이 10월 31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북부와지리스탄지역에서 미군의 무인기공습으로 3명의 무고한 주민이 살해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은 파키스탄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미군의 무인기공습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무인기공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정부의 립장을 밝혔다.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무인기공습에 항의하는 집회 진행

국제체육소식

제2차 세계무도격투경기대회 진행

제2차 세계무도격투경기대회가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로씨야의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서 진행되였다.

대회기간 쌈보, 우슈, 가라데, 유술, 권투, 격검, 레스링 등 15개 종목의 135개 세부종목경기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로씨야팀이 금메달 47개를 포함한 93개의 메달을 받고 최종메달획득순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2013년 세계컵남자탁구경기대회 소식

2013년 세계컵남자탁구경기대회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벨지끄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대회에는 15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탁구강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결승경기에서 중국선수가 벨라루씨선수를 4:1로 이겨 우승컵을 쟁취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야스구니진쟈참배로 격화되는 중일관계

최근시기 중국의 대일자세가 강경해지고있다.

그 리면에는 일본정객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문제가 있다. 그도그럴것이 일본에서는 정객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가 정례화, 합법화, 의무화되여가고있다.

올해를 보아도 그렇다. 지난 4월 부수상과 내각판방부장관, 국가공안위원장을 비롯한 내각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참배에 뛰여들었다. 그 수는 지난 시기에 비해 근 5배나 많은 168명에 달하였다. 지난 8월 15일에는 일본의 극우익단체인 《모두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에 속해있는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야스구니진쟈에 몰려가 향불을 피워올렸다. 얼마전에는 가을철대제라는 명목밑에 159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야스구니진쟈에 몰려갔다. 현 집권자는 야스구니진쟈에 매번 제물을 바치였다. 정계인물들의 로골적이며 집단적인 진쟈참배놀음은 오늘날 일본의 우경화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일본정객들이 저들의 처사를 두고 국내문제라느니, 주권국가국민의 권리라느니 뭐니하며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은것이다.

이번 기회에 야스구니진쟈가 어떤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전신은 도꾜초혼사였다. 수년간에 걸친 싸움을 통해 막부정권을 무너뜨린 왜왕파들은 일본에 왜왕제도를 확립하였다. 명치정부는 왜왕을 위해 죽은 관군들을 추모할 목적으로 도꾜에 초혼사라는 사당을 설치하였다. 1879년에 도꾜초혼사는 야스구니진쟈로 개칭되였다. 야스구니란 말자체가 란리가 일어나 어지러워진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야스구니진쟈는 죽은 사람들의 제를 지내는 일본의 다른 사당들과 달랐다. 말그대로 전장에서 왜왕만세를 부르며 죽은 군인들의 제를 지내는 곳으로서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최고의 국가진쟈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있었다. 그후 야스구니진쟈에는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시기 죽은자들의 위패가 첨가되였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일본에서 국가신도가 페지되면서 야스구니진쟈는 종교 및 전몰자추도시설로서의 기능만을 가지게 되였다.

그렇다고 하여 야스구니진쟈의 상징적의미가 달라진것은 결코 아니다. 1978년에 도죠 히데끼 등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수급전범자 14명을 야스구니진쟈에 합사시켰다. 현재 이곳에는 청일, 로일전쟁과 조선침략,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시기에 죽은자들의 위패가 240여만개나 있다고 한다. 그중 태평양전쟁시기에 죽은자들의 위패는 212만개나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야스구니진쟈는 일제의 침략전쟁력사의 상징으로, 군국주의사상의 전파거점으로 되고있다.

사실상 력대 일본집권층은 야스구니진쟈를 자국민들속에 극단적인 군국주의침략사상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리용하여왔다. 특히 1951년이후 《일본유족회》를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들은 야스구니진쟈의 국영화운동에 달라붙었다. 1969년부터 1974년사이에 5차에 걸쳐 야스구니진쟈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였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자민당과 우익보수세력들은 야스구니진쟈국가보호운동을 벌리였다. 한때 버림받았던 야스구니진쟈는 오늘날 집권층의 비호와 후원밑에 도꾜한복판에 10만여㎡의 면적을 차지하고 온 일본사회를 군국주의사상으로 물들이고있다.

진쟈의 한쪽마당에 자리잡고있는 유치관에는 《야스구니의 신돌》이라는 제목아래 침략전쟁에서 개죽음을 당한자들의 사진이 3 000여장이나 전시되여있다. 일본반동들은 이자들을 전범자가 아니라 《대일본제국》을 위한 길에서 생명을 바친 《영웅》으로, 《애국렬사》로 내세우고있다.

뿐만아니라 집권자들이 야스구니진쟈참배에 솔선 앞장서고있다. 일본집권층이 야스구니진쟈참배를 강행하며 군국주의사상주입에 열을 올리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일본인들을 침략사상으로 무장시켜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해외팽창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야스구니진쟈참배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써 나라를 군국화하여 어느 때든지 해외침략을 단행할수 있게 만들려 하고있다. 실제로 일본집권층의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은 패전으로 공백이 생긴 일본인들의 머리속에 군국주의사상을 심어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였다. 일본집권층속에서 야스구니진쟈참배기운이 높아질수록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열풍이 세차게 일고있으며 군국주의가 일본집권계층의 정치를 떠받드는 사상정신적기초로 굳어지고있다.

결국 일본집권층의 야스구니진쟈참배는 일본에만 국한된 내부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침략력사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립장과 태도, 그 청산문제와 앞으로의 대아시아관을 보여주는 예민한 정치적문제이다. 과거 일제가 아시아인민들에게 끼친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강점통치의 죄악을 아시아나라들은 절대로 잊지 않고있다. 일본지배층의 야스구니진쟈참배로 하여 지난 시기에 일본과 그 주변나라들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긴장해졌던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로 하여 일본의 여러 선임집권자들은 야스구니진쟈에 찾아가 참배하는 문제를 심중히 고려하군 하였다.

그러나 현 일본집권층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오만한 립장과 태도를 취하고있다. 집권 1년을 맞으며 수상의 야스구니진쟈참배를 계획하고 로골적으로 실행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1978년이후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왜왕의 참배까지 주장해나서는 판이다. 이것은 아시아인민들의 응당한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사고있다.

20여년전에 중국과 일본사이에는 일본집권층의 야스구니진쟈참배와 관련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그에 의하면 일본집권자와 외상, 내각관방장관은 야스구니진쟈를 절대로 참배하지 않는다고 밝혀져있다.

중국은 일본집권층이 협정을 파괴하면서 공공연히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고 수상이 제물을 봉납한데 대해 신랄히 비난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수상이 야스구니진쟈에 제물을 보낸것은 《참배한것과 성질은 똑같다.》고 까밝혔다. 신문은 야스구니진쟈참배를 정면에서 떼리는것은 전적으로 필요한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잘못된 력사관과 군국주의사상은 아시아의 평화에 있어서 위협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한 교수는 정부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한 정객들의 명단을 만들어놓고 사증발급거부 등 제재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야스구니진쟈에 대한 일본정객들의 참배문제에 대해 중국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일본이 군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통치력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가와 관계되는것으로서 절대로 일본내정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일본측이 력사문제에 대해 한 태도표명과 공약을 준수하고 실지행동으로 아시아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일본정객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문제는 과거력사에 대한 태도문제로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주변나라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는가, 개선발전하는가가 좌우된다.

일본집권층이 침략력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군국주의망령에 매여달린다면 일본과 아시아나라들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질수 없다. 일본에 차례질것은 고립과 파멸뿐이다.

배금희

ㄱ-31172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